

AUTHOR 이광호

TITLE 새로운 종교개혁이 요청되는 텐마크

IN 월간고신

61호 (10, 1986): 19-21



20C 종교개혁의 일부를 담당했던 후손들이지만 현재는 디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호모섹스 운운하며 선교사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키는 실정이다.

마음도 없지 않을 것이다.

그리면 덴마크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듯 이 아름답고 풍요하기 만한 나라일까?

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변화기는 실제로 정관(?)이다. 오후가 되면 벌써 머리 스타일을 이상아로하게 해서 별별 색깔의 물감을 다들인 풍크(Punk)족 청소년들이 할 일 없어 우글거린다. 그들의 뉴 은 촛점을 잊은 채 냉생하게만 느껴진다. 거리의 여기 저기서 가끔 볼 수 있는 섹스 술(Sex shop)의 원도우는 '그런 문화'에 익숙하지 못한 방문자들로 하여금 경악하게 만든다. 정상적인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환경에서 어뚱개 자녀를 양육할 것이며 이런 류가 범람하는 가운데 어뚱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염려가 생기기도 한다. 한번은 그곳의 청년들이 교회 이유회관 교제를 위하여 '국립민족촌' 옆 가게되어 팔자도 함께 가게 되었다. 불과 십이삼명의 적은 수였지만 이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, 흥미있고 불만족 놀라운 것들도 많았다.

고이 보존해 둔 덴마크 고유의 초가 가옥이나 응접하게 세워둔 풍차들은 그곳을 방문하는 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. 정말 신기하게 여겨진 것은 그들의 민속물로써 전시해 둔 도리깨, 초롱, 기둥 이 우리 민족의 것들과 너무나 품

사하였다는 것이었다. 그것들은 마치 이조 시대의 물건들을 그곳으로 옮겨 전시해 둔듯 했다.

그러나, 펠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.

박물관 안의 여러 사람이 다니는 통로 중앙에서 어떤 두 짚은이가 다른 사람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듯이 열렬하게 키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, "역시 듣던바 대로 스칸디나비아인구나"라고 여기며 스스로 웃마땅히 할 수 밖에 없었다. 다른 곳을 둘러본 후, 돌아 나오면서 우리 일행은 다시 그들을 지나치게 되었는데, 이제보니 그들은 둘다 콧수염을 텁수룩하게 기른 청년들이었다. 아찔하게 느껴져 함께 가던 형제에게 저릴 수가 있으나니고 묻자 그 나라에서는 그런 장면을 별로 이상스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. 그러면 서 그는, 저들 중에도 크리스챤이 있는데 그들은 '디윗과 요나단의 사랑'을 호모섹스의 성경적 근거로 들기도 한다고 지나치는 말로 이야기해 주었다. 놀라지 않 을 수 없었다.

지금도 이 나라의 국교는 기독교이다.

거리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의가 자기는 크리스챤이라고 대답한다. 어릴 때 성직적인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크리스챤인 줄 아는 모양이다.

## 교회의 현주소

덴마크의 약 500만 인구중 기독교인은 20만 정도일 것이라고 그곳 기독교의 한 관계자는 말하는데, 그렇다 해도 기독교 인구는 전체의 약 4%에 불과하다. 그러나 마 그 가운데 종교한 교인은 그 수치에서 훨씬 줄어들 것이 아닌가?

코펜하겐 중심지에는 큰 건물의 지하실을 한주일에 한번씩 빌려 사용하는 세법

알레진 'Christian Fellowship Church' 조직에서 빠나 웃처먼 나(Watchman Nee)의 영향을 받은 독립교회라고 하는데 모두들 그 모임을 상당히 전전하고 좋은 단체라고 했다. 그 교회에는 목사님 대신 회중 기운에서 선출된 장로님들이 몇개월

씩 교대로 말씀을 전하며 교회 행정을 둘

본다고 한다. 장로님들이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한 소명이나 은사를 가진 자들을 찾아내어서 예배시간에 간증을 시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일이다. 그들은 때로 외부의 목

사님들을 강사로 모사기도 한다. 이 교회의 특징은 조직보다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특히 중요시 하는 것이며, 그들은 거의 매주 성찬식을 행한다.

히다가 앤식년을 맞아 고향에 와 있는 한

선교사 가족과 함께 유명한 '그루투교회'(25년간 공사했다함)를 바라보며 예 러가지 대화들을 나눈 기억이 난다.

그들이 의하면 덴마크 정부당국은 선교 사로서의 전면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. 즉, 외국인으로서 덴마크에 와서

선교 사역을 하려면 2년간 밖에 체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. 자기들은 모두 크리스

챤이어서 선교사가 풀필요하다는 의미인 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정 확하게 알 수 없다. 수도 코펜하겐에는 신학교가 없으며 메인랜드(Mainland : 유 틀란트 반도를 말하는 듯)에 성경대학(Bible College)이 하나 있다고 한다.

덴마크는 영적으로 보아 심각한 걱정거 리가 많은 나라지만, 그런 전형적인 서 구의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군대에 있음을 감사한 일이다. 그들은 대개 메말라가는 기존 교회를 빠나 특정한 날 을 집어서 가정교회(house church)로 모이는 것이 일반적이다.

이러한 모임들이 곧 16C의 종교개혁의 맥을 잇는 새로운 맥이 아닌가고 펠자는 생각해 본다.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. ♣

## 기독제목

코펜하겐에서의 어느날 오후 늦게,

제작한 인도에서 신교사로 일한 적이 있는 한 형제의 가족과 네팔에서 선교사로 일

O.M단기선교사로 수령과 인도에서 서역했다. 현재 고신 대학원에 재학중이다.